



〈신용운〉



예비역 신용운 복귀신고 아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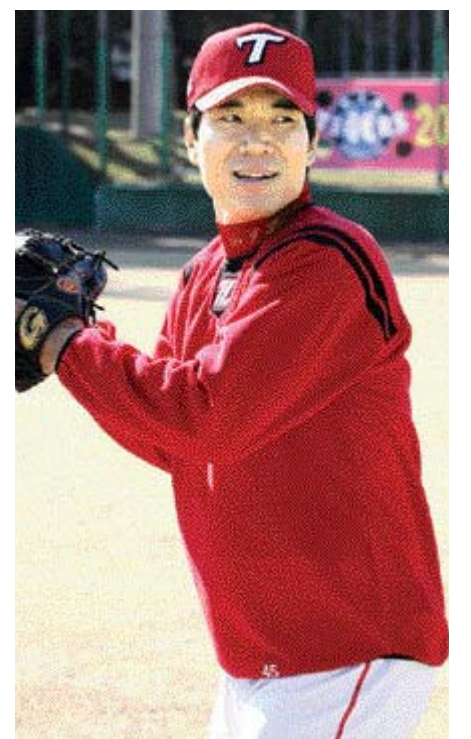
10개월만에 타자상대 라이브 피칭...밸런스 회복 안돼

조기 투입 미지수...노장 이대진은 주말 2군 경기 출격

KIA 타이거즈의 예비역 신용운이 10개월 만의 라이브 피칭에 나섰다. 어깨 통증으로 출격이 늦춰진 투수 신용운이 21일 광주 OB 구장에서 라이브 피칭을 가졌다. 문희수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 야구부를 상대로 한 이날 피칭에서 신용운은 60개의 공을 던지며 전반적인 컨디션을 점검했다. 볼 스피드, 제구, 구위 모두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었지만 라이브 피칭을 시작하면서 복귀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경찰청에서 제대한 신용운은 올 시즌 KIA 마운드에 힘을 실어줄 선수로 우선 손꼽혔다. 입대전까지 KIA의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묵묵히 마운드를 지켜온 만큼 조병현 감독이 신용운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조 감독은 캠프에서 신용운의 피칭을 꼼꼼히 살펴며 마운드 구상을 했지만 캠프 막바지 어깨 통증이 도졌다. 재활군에서 차근

차근 복귀 과정을 밟아온 신용운은 5월 출격을 목표로 달려왔다. 4월 들어 본격적으로 공을 잡은 신용운은 라이브 피칭까지 소화했지만 그라운드 복귀를 위해서는 '밸런스와 실전감각'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용운은 군입대 전 KIA의 마당쇠 역할을 하느라 어깨와 팔꿈치가 좋지 않았다. 복무 기간에도 완벽한 몸상태로 투구를 한 것은 아니었다. 부상 부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보니 투구동작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성기 때의 투구 밸런스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다. 복귀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밸런스 잡기였지만 아직 몸에 완전히 익은 것은 아니다. 실전감각도 신용운의 복귀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2005년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신용운은 지난해 8월에는 옷자란 팔꿈치 뼈를 깎는 수술을 받느라 오랜 시간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타자를 상대로 피칭을 한 것은 10개월 만

이다. 신용운은 "오랜만에 타자들을 놓고 투구를 했는데 아직은 피칭 상황이 어색하고, 만족스럽게 공을 던지지 못한 것 같다"고 이날 피칭을 자평했다. KIA 불펜이 초반 예상외의 부진을 보이면서 신용운의 복귀에 거는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는 신용운은 23일 한 차례 더 라이브 피칭을 한 뒤 2군 마운드에 등판할 예정이다.



〈이대진〉

한편 기흥으로 마운드를 떠났던 이대진도 주말 2군 경기에서 나서 복귀무대를 위한 리허설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침묵'

3연타석 삼진...타율 0.318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처음 방문한 타깃 필드에서 3연타석 삼진을 당하고 빈손으로 귀가했다.

추신수는 21일(한국시각)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계속된 미국 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 방문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출장, 세 타석 연속 삼진으로 물러나는 등 4타수 무안타로 게임을 마쳤다. 시즌 타율은 0.350에서 0.318로 떨어졌다. 추신수가 침묵한 클리블랜드는 슬로이의 완급 조절에 맞춰 1-5로 패했다.

/연합뉴스

‘골프여제’ 오초아 필드 떠난다

전격 은퇴...내일 기자회견서 발표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28·멕시코)가 선수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오초아는 지난 20일(한국시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은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멕시코 일간지 레포르마가 오초아의 은퇴 소식을 보도했고 LPGA 투어 홈페이지 역시 “23일 오초아가 멕시코시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퇴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초아가 은퇴를 발표하는 23일은 그가 여자 프로골프 1위 자리를 유지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다. 이로써 오초아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갔던 길을 그대로 걷게 됐다. 소렌스탐 역시 세계 최강의 자리에 있던 2008년 5월 전격 은퇴를 선언해 정상에 있을 때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소렌스탐의 뒤를 이어 ‘골프 여제’라는 칭호를 받았던 오초아는 2003년부터 LPGA 투어에 입문해 그해 신인상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낸 선수다. 미국 대학 무대를 평정하고 2002년에는 LPGA 투어의 2부투어인 퓨처스 투어에서 올해의



피언십 등 두 차례 메이저 우승컵도 거머쥐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최저타수 1위와 올해의 선수상,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상금 랭킹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여자 골프 선수였다. LPGA 통산 상금 순위에서도 1481만 7846달러(약 164억원)를 벌여 소렌스탐(2257만달러·약 250억원)·카리 웹(호주·1542만달러·약 171억원)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오늘 발렌타인 챔피언십 개막

21일 제주도의 핀크스 골프코스에서 열린 발렌타인 챔피언십 프로암 경기에 출전한 양용은이 캐디와 코스공략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온 엘스 “나는 박지성 팬”

우드 커버에 맨유 로고

10살때부터 ‘축구 사랑’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자신의 드라이버에 호랑이 인형 커버를 씌우고 다닌다면 ‘빅이저’ 어니 엘스(남아공)의 드라이버 커버는 사자 인형이다. 하지만 엘스의 캐디백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페어웨이 우드에 잉글랜드의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로고가 새겨진 커버가 덮여 있다. 22일 제주 서귀포에서 개막하는 유럽-한국프로골프 투어 발레타인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엘스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축구에 대한 사랑과 오는 6월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자랑했다. 엘스는 “럭비 선수도 했기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럭비지만 영국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축구팬이 됐다”며 “영국의 인기 축구팀의 경기를 보면서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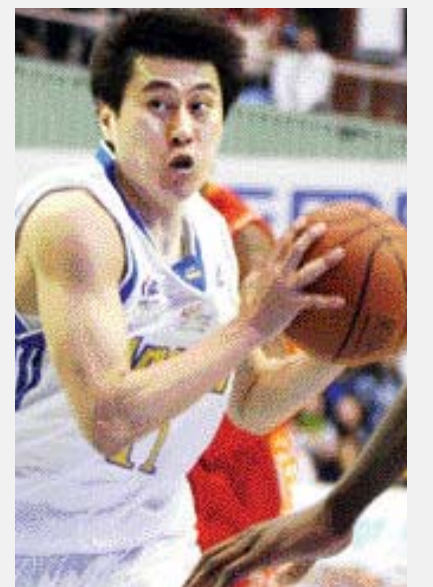


10살 때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었다”고 말했다. 대회가 없는 날이면 축구장을 찾는다. 엘스는 월드컵축구대회 때 남아공을 많이 찾아 볼 것을 당부했다. 엘스는 “6월은 남아공에서 가장 좋은 계절이다.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가 쾌적하고 관광하기에도 좋은 시기”라고 자랑했다. 제주 음식은 모두 맛있지만 흑돼지 고기를 특히 좋아한다는 엘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 중에 좋아하는 선수는 박지성”이라며 한국팬들에 대한 팁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영원한 오빠’ 이상민 팬들이여 안녕~

체력저하·허리부상에 은퇴

‘영원한 오빠’ 이상민(38·서울 삼성)이 프로농구 코트를 떠난다. 삼성은 포인트가드 이상민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년 남았지만 앞당겨 은퇴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상민은 “삼성에서 정상을 차지하고서 은퇴하고 싶었는데 마무리를 못해 아쉽다”며 “체력저하와 고질적인 허리부상 때문에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어려울 것 같아 은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상민은 대학 시절부터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구름관중을 몰고 다녔으며 프로에서는 2001~2002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무려 9시즌 연속으로 올스타 팬 투표 1위를 독식하는 등 ‘영원한 오빠’로 군림했다. 이상민은 1997년 프로에 원년 멤버로



입문한 이후 지난 시즌까지 정규시즌 581경기를 뛰면서 평균 9.7득점, 리바운드 3.3개, 어시스트 6.2개, 가로채기 1.5개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오초아 떠난 LPGA 투어 지각변동

신지애·최나연·청야나...

여제 자리놓고 각축 벌일듯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가 21일 현역 은퇴를 선언하면서 향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판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오초아가 빠진 LPGA투어는 절대강자가 없는 춘추전국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초아는 2006년 6승, 2007년 8승, 2008년 7승을 수확했다. 그리고 결혼 준비로 몸과 마음이 바뀐 탓에 작년에도 3승을 올리며 올해의 선수상을 지켜냈다. 이런 오초아가 LPGA 투어에서 사라지면 새로운 ‘여제’ 자리를 노린 ‘영건’들의 각축은 더 뜨겁게 달궈질 전망이다. 신지애(22·미래에셋)·최나연(23·SK텔레콤)·청야나(대만)·수잔 페테르센(노르웨

이)·플라 크리머(미국)·미야자토 아이(일본)·위성미(21·나이키골프)·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등이 후보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오초아를 제치고 상금왕을 차지한 ‘예비 골프 여제’ 신지애가 주목을 받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시즌 오초아와 올해의 선수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신지애와 올해 나비스코 챔피언십 우승자 청야나가 오초아의 빈자리를 메울 후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오초아와 마지막 순간까지 올해의 선수상을 다했던 신지애는 ‘포스트 로레나’에 가장 근접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메이저대회에서만 2승을 따낸 청야나와 장타력이 돋보이는 페테르센도 ‘여제’ 자리를 노릴만 하다. ‘주류’로 자리잡은 한국 군단의 입지도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나연을 비롯해 김인경·지은희·허미정 등은 더 자주 우승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